

# 북방경제위장에 골드만 출신... “경협, 실질성과 내라”

(권구훈 이코노미스트)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위촉 13~18일 아세안 정상회의 등 참석 아세안 교역액 1600억불 상회 전망 2020년 베트남 수출액 EU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이 서서히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공석이었던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새로 위촉했고, 선포 1년이 지나고 있는 신남방정책은 가시적인 성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13~18일 참석하는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이들 정책에 더욱 가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 ◆권구훈 신임 북방위 위원장 위촉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권 신임 위원장은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으로 관련직을 유지하면서 북방위 위원장직도 겸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증권·투자 업무를 하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직을 유지하면서 대북경협 문제를 관장하는 게 부적절해 보인다”는 지적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총무실에서 권구훈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위촉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지만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가 진행되고 동시에 남북관계가 좋아져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임청 바빠지고 이해 상충 문제를 제기할 정도가 되면 저도 (검정 문제에 대해)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우리 회사(골드만삭스)도 150년 된 회사라 그렇게 되면(검정 때문에 이해 상충 문제가 불거지면) 회사가 힘들어진다는 걸 잘 안다”면서 “회사에서도 이 문제를 한 달 정도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위촉장 수여식 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개인적 인연이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여름휴가 때 ‘명견만리’라는 책을 읽었는데 책 말고 TV에서도 직접 명견만리를 보시고 권 위원장의 강연에 감명을 받아 기억하고 있다”가 인사수석실에 추천했고 검증을 거쳤다”고 소개했다.

### ◆1년된 신남방정책, 교역 증가 등 성과 가시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김현철 위원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정부가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지 1년이 지났다. 1년간 신남방정책의 성과가 나타나 소개하겠다”면서 “한·아세안 교역액이 증가하면서 올해 16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신남방정책의 목표인 2020년 2000억 달러 교역 규모 달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올해 10월까지 한·아세안 교역액은 1321억 달러로, 작년 동기대비 7.6% 증가했다”며 “특히 베트남은 단일 국가 기준으로 중국·미국 다음으로 제3위 수출국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고 전했다.

신남방특위는 앞서 별도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올해 대 베트남 수출 규모가 10월까지 400억 달러를 달성했다면서, 2020년에는 대 베트남 수출이 처음으로 유럽연합(EU) 지역 전체(영국 포함 28개국)에 대한 수출액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올해 우리의 신남방지역 해외 인프라 건설 수주량이 중동을 넘어섰다. 신남방 지역이 우리 최대의 건설 수주처로 부상했다”며 “전 세계 자동차업계 불황 속에서도 인도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가 선전하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한류 열풍을 바탕으로 우리의 중소·중견기업 비즈니스가 아세안의 다양한 소비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아세안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신남방 국가 정상들의 마음을 얻는 감성외교를 보여줬다. 아세안 재해 때 우리 쌀을 나눔으로써 아세안과의 상생의 공동체를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는 13~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제2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는 데 이어 17~18일에는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제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들 일정 기간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 스톡홀름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中 물류업계 택배보관함으로 전자상거래 ‘쑥’

최근 중국 물류업계가 스마트택배 보관함을 적극 활용해 전자상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무역협회 청두 지부가 발표한 ‘최근 중국 스마트택배 보관함 시장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중국 택배산업의 시장규모는 4957억 위안을 기록, 전년 대비 24.7%의 빠른 성장을 보였다.

같은 기간 양적으로도 401억 건의 물량을 기록했다. 하루에도 1억 건 이상의 택배가 배송되고 있는 셈이다. 오는 2020년까지 중국의 택배물량은 연간 700억 건까지 늘어날 전망이다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스마트택배 보관함은 사물인터넷(IoT)과 모바일 결제제를 기반으로 택배 배송원 및 수령인이 택배물품의 보관, 수령 및 발송을 위해 활용하는 보관함이다.

배송원이 택배물품을 스캔해 보관함에 넣으면 수령인에게 1회성 비밀번호에 해당하는 인증번호가 발송, 수령인이 편한 시간에 보관함을 방문하여 택배를 찾는 시스템이다. 수령인이 보관함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택배물품을 수령하면 물류업체에 수령 사실이 실시간으로 통보된다.

2017년 기준 중국의 스마트택배보관함은 총 27만 곳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택배업의 빠른 성장에 힘입어 2020년까지는 125만 곳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의 스마트택배 보관함은 우편우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국가우정국과 알리바바 산하의 물류기업, 주요 물류 대기업들이 출자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 불닭볶음면 등 韓 인기식품, 中 역직구물까지 영토 확장

### 이마트·CJ제일제당·올리브영 입점 삼양·농심·동원 등은 직영판매 병행

중국 온라인 식품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한국의 인기 식품들이 중국 내 역직구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중국 역직구물 시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2위 역직구물인 텐마오국제에서는 지난 4월 기준 500여 개 한국 식품이 판매되고 있었으며, 이들의 거래량 순위는 삼양 불닭볶음면, 노브랜드 치즈볼, 구일 김, 전남 유자차, 농심 김치사발면 등 순이었다.

주요 품목은 인스턴트 식품과 과자, 사탕류 등 간식, 그리고 쌀과자 등 곡물 가공 식품, 음료 분말 등으로 분석됐다.

이마트와 CJ제일제당, 올리브영 등

한국 업체들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는 식으로 입점했고, 불닭볶음면과 김 등 인기제품은 해당 물의 직영 판매도 병행했다.

업계 3위 역직구물인 징둥국제에서는 4월 기준 85개 한국 식품이 판매 중으로, 인스턴트 식품과 초콜릿, 견과류, 커피 등이 주요 품목으로 꼽혔다.

이들 중 불닭볶음면, 허니버터아몬드, 유자차 등은 구매 후기가 1만 개가 넘는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삼양과 농심, 청정원, 오투기, 동원, 이마트, 롯데, 빙그레 등 한국 업체들은 이곳에서도 입점 및 직영 판매를 병행해 시장을 공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샤오홍수에서는 야외활동 중 즐길 수 있는 한국산 레저 식품, 음료 분말, 인스턴트 식품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구매자 평가 수가 많은 인기 상품으로

는 레저 식품 중 허니버터아몬드, 마켓오리얼브라우니, 인스턴트 식품 중 불닭볶음면, 허니치즈볶음면 등이 꼽혔다.

양마터우에서는 인기상품 톱 20 중 한독의 숙취해소제 레디큐(5위), 해태 떡볶이과자(6위), 농심 신라면(13위), 삼양 자장면(17위) 등 한국 제품이 4종이나 포함됐다.

aT는 중국에서 역직구물을 통한 식품 수입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조사업체 아이리서치와 중량위 마이왕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의 수입식품 구매경로는 ‘주로 온라인’이라는 답이 58%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이 26%였으며 ‘주로 오프라인’은 16%에 그쳤다.

역직구물에서 우리나라 제품의 브랜드 선호도 및 매출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웨이핀국제에의 제품 원산지 국가별 선호도는 미국과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가 3위였다.

웨이핀국제 소비자들의 선호 브랜드 중에는 정관장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우리나라 브랜드가 다수 포함됐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손경식 회장 “건설한 조직·회계로 ‘뉴 경총’ 만든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0회 이사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투명한 회계, 예산 처리 등으로 구설수를 겪었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손경식 회장이 조직을 건설하게 탈바꿈하기 위한 ‘뉴 경총’을 선언했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80회 경총 이사회를 개최하고 규제 개혁과 고비용·저생산성 산업구조 혁신,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와 노동쟁의 자제를 제시했다.

손 회장은 “그동안 제기된 회계와 예산 관련 문제에 대해 외부 회계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진단을 받았다”며 “고용노동부

의 특별지도 점검 결과도 통보 받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들을 철저히 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손 회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정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고 연구·개발(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들을 최소화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배려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담이 높은 가업 상속세제도 대폭 완화가 필요하며 신산업 발굴과 4차 산업혁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경총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경총은 앞으로 공식 출범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여·야·정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입법에 합의한 것은 다행스러운 결정”이라며 “하지만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은 여전히 기업들에 매우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ujjin6326@